지스트, 정무형 박사 특별대사 위촉

- 내년 2월까지 지스트-유럽 국가의 국제협력 가교역할 수행

▲ 지스트가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정무형 박사를 지스트 특별대사로 위촉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무형 지스트 특별대사, 김기선 지스트 총장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가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기 위해 한국 문화와 예술을 알리는 데 공헌하고 있는 정무형 박사를 지스트 특별대사로 위촉하고, 4월 22일(금) 위촉장을 전달했다.

정무형 박사는 현재 유라시아평화통합연구원의 자문위원이자 미국 Chabin & Chung Productions International (CCPI)의 회장으로서 유라시아 국가와 우리나라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한국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데 적극 앞장서고 있다.

정 박사는 지스트 특별대사로서 내년 2월까지 지스트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의 국제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맡아 지스트의 글로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스트 김기선 총장은 "특별대사로 위촉되신 정무형 박사님과 함께 유럽 국가들과의 폭넓은 교류를 통해 융합과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한다"며 "지스트가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 및 협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 이상찬 유라시아평화통합연구원 운영위원장, 김해순 유라시아평화통합연구원장, 정무형 지스트 특별대사, 지스트 김기선 총장, 김영집 대외부총장, 전창덕 연구원장